

Ruth Rogaski, *Knowing Manchuria: Environments, the Senses, and Natural Knowledge on an Asian Borderla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22. 464 pp.

황유정†

한반도와 중국 동북 지역의 경계에 위치한 백두산 혹은 창바이산(長白山)은 평지로부터 다가갈수록 정작 그 모습이 희미해진다. 『만주 알기(*Knowing Manchuria*)』의 저자 루스 로가스키(Ruth Rogaski)는 책의 끝머리에서 자신의 2006년 백두산/창바이산 등반 경험을 술회하며 실제로 산기슭에 도달해도 보이지 않던 산이 등반을 시작하고 나서야 보이기 시작했음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저자의 경험은 17세기 말 청(淸)의 관료 우머너(Umene)가 황제의 명으로 창바이산을 답사했을 당시 느꼈던 어려움을 떠올리게 한다. 저자가 발로 땅을 밟고, 눈으로 산을 보며 느꼈던 이 생생한 감각은 특정한 장소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한 고찰과 연결된다. 보이지 않는 산이 보이게 되었을 때 개별적 믿음이나 상상으로 존재하던 장소는 실제(reality)가 된다. 이 책은 다루는 만주 지역이 상이한 개인 및 집단에 의해 감각되고 인지되었던 다양한 모습을 역사적으로 검토한다.

이 책은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각각의 행위자들이 만주의 환경에 대한 지식을 창출해온 역사를 다룬다. 만주인 황제, 한인(漢人) 및 조선인 지식인, 유럽의 선교사, 나나이(Nanai)인 사냥꾼, 러시아의 식물학자, 일본의 미생물학자, 미국인 고생물학자, 중화인민공화국의 과학자들과 정책 결정자 등 다른 배경과 시야를 지닌 인물들은 만주 지역을 각기 다른 경관으로 바라보았다.

---

† 고려대학교 사학과, youjung.hh@gmail.com

이러한 “다층적 경관(multiple landscapes)”이 만들어낸 종합상이 곧 만주였다(9). 저자는 개별 행위자들이 각자에게 의미 있는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 이 종합적인 전체의 서론 다른 일부분들에 집중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곧 만주라는 공간 속에서 만들어졌던 인간-비인간의 관계가 그만큼 다채로웠음을 뜻한다.

창바이산(백두산)에서부터 헤이룽장(黑龍江)/아무르강(Amur River)을 따라 만주와 몽골 고원을 잇는 초원 지대까지 아우르는 로가스키의 시야는 단순히 이 지역에서의 인간사를 그리기 위해 펼쳐진 것이 아니다. 조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각각의 장소와 개별 행위자들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장소를 알아가는 방식에 대한 역사(history of ways of knowing a place)”와 “장소 그 자체의 역사(history of the place itself)”임은 저자가 각 장마다 변화하는 만주의 상(像)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4).

제1장의 무대에서 만주를 재구성하는 주체는 한인 유배자들이다. 강남(江南)의 한인 문화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한인 지식인들은 “오지”인 동북의 닝구타(Ningguta, 寧古塔)로 유배를 가 그동안의 지식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풍경을 받아들여야 했다. 유배자 방공건(方拱乾)이 닝구타에 도착해 “역사가 없는 땅”이라며 한탄한 것은 그의 지식을 바탕으로 공간을 읽어내고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한 좌절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오히려 그가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마주쳤던 지역들은 명청 교체기 혹은 그 이전 비한인 집단과의 정치적·군사적 분투의 역사가 쓰였던 곳이라는 점에서 회한과 슬픔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었지만, 그보다도 외딴 곳에 있었던 닝구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유배되었던 한인 지식인들은 기존의 지식뿐만 아니라 관찰, 즉 스스로의 감각에 의존해 이 지역을 인식해야 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명청교체기에 대두된 실학(實學)이라는 지성사적 흐름에 힘입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낯선 땅을 떠나가기 시작했던 유배자들과 달리, 청 황제에게 만주는 낯선 땅도 오지도 아니었다. 조상들의 고향이자 만주족의 역사의 시작인 만주는 그에게 “용이 일어서는 땅[龍興之地],” 즉 신성하고 상징적인 땅이었다. 제2장에서는 강희제(康熙帝)가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나섰던 제2차 동순(東巡, 1682)을 중심으로 청 황제와 한인 관료, 그리고 유럽 선교사가 만주를 각기 인식한 바가 드러난다. 강희제는 동순을 통해 만주 땅에 잠재되어

있는 조상과 제국의 힘을 전해 받고자 했다. 로가스키는 이 힘을 “용맥(龍脈)”으로 표현하며 주목하는데, 이것이 비록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 황실이 그 존재를 믿고 순례함으로써 실존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창출된 지식은 동순에 함께한 한인 관료 고사기(高士奇)를 통해 왕조(我朝)의 역사임이 확신되었고, 예수회 선교사 페르디난트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의 지리 지식을 통해 특정 좌표로 기록될 수 있었다.

제3장의 백두산/창바이산 탐사 또한 이와 같은 용맥, 곧 제국의 성스러운 힘의 근원이 이 산에서 기원한다는 믿음과 더불어 그것을 좌표화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백두산/창바이산 탐사가 만주의 두 강인 두만강/투먼강과 압록강/얄루강의 근원을 백두산/창바이산으로 간주해 진행되었다는 것, 그것이 지도로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청 황제의 의도를 드러낸다. 명확한 좌표와 형태, 범주로서 드러나는 지도와 더불어 성스러운 산을 숭배하는 의식인 망제(望祭)와 제단 건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용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결국 제국의 기운(氣)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특정한 의식과 지도 제작을 통해 지식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로가스키는 여기서 백두산/창바이산에 대한 논의를 멈추지 않고, 조선인의 백두산 숭배를 언급함으로써 각기 다른 믿음이 상이한 진실과 논거로 이어졌음을 보인다. 조선 왕조는 백두산을 조선의 정치, 역사, 지리, 그리고 신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북악(北岳)의 지위에 올렸으며, 한반도의 동맥으로서의 백두대간과 그 근원으로서의 백두산을 강조하였다. 결국 이 산은 두 정치 집단에 의해 지향하는 바가 다른 신성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베이징과 한양 모두 결국 그 산에서는 거리가 있고, 탐사 혹은 순례를 통해 이곳에 접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산의 현지 주민이 실제로 느끼는 감각과는 이질적인 환상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르강/헤이룽강 유역의 식물에 대한 지식을 러시아와 청 제국의 “외부인”이 이해하고 만들어갔던 과정 또한 이와 유사하다. 특히 19세기 이 지역의 일부가 청에게서 러시아 제국의 영토로 넘어감에 따라 아무르강의 식생을 새로이 마주하게 된 러시아 식물학자는 그가 환경을 이해하는 데 사용한 도구인 서구 식물학의 범주를 이곳에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현지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인간-식물 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로가스키는 제4장에서 식물학자 칼 막시모비치(Karl Maximowicz)의 저서를 탐독하여 그 지식 체계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저자가 제시한 서구, 혹은 러시아

식물학 지식의 특징은 “보편적 권위(universal authority)”라 주장되는 질서 체계 아래 개별 식물들을 포섭시키는 것이었다. 해체·분석·분할은 이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는데, 보편 체계에 따라 식물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으로부터 식물을 분리해 해부하고 분석해야 했기 때문이다. 미세한 구조들까지 모두 분석된 식물들은 학명으로 명명되고, 지도에 표시되며 그 분포 등이 숫자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식물학적 산술(botanical arithmetic)”은 현지 주민이 그 식물들에 대해 갖고 있는 기억이나 지식으로부터 이를 유리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새롭게 “발견”되었다고 간주된 많은 식물이 현지어나 한어 명칭을 이미 지니고 있었던 것은 이를 방증한다. 물론 청 제국이 헤이룽장 지역의 식물들을 이해한 방식 또한 직접적 감각이 아닌 현지인이라는 매개를 통한 것이었지만, 이 개인들은 청의 신민으로서, 특정 식물들을 기르고 수확하고 바치는 이들로서 기록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 지식 자체를 기존의 위치에서 유리시키고 해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로써 자연과 인간의 거리감이 각 개인과 집단의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름이 드러난 것이다.

제4장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냈던 근대 과학은 제5장에 이르러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제5장의 배경이 되는 20세기부터는 “과학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가 도래했기 때문이다(197). 특히 이 장에서는 러허(熱河)를 무대로 하는데, 이 지역은 중원과 내륙 아시아 세계 사이의 과도기적 장소였다. 이곳에서 청 황제는 용맥과 만주인들의 고토인 용흥지지를 되새기고는 했다. 청 황제에게 이 지역에서 발견되었던 어류 화석인 석어(石魚)는 제국의 신비와 기적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과학으로 자연 세계를 분류하고 정의하려는 노력은 이 지역과 석어의 의미를 모두 전환시켰다. 청 황제의 석어는 서구 과학 체계 속 라이콤테라(Lycoptera)가 되었으며, 용맥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다른 어류 화석들과 관련되고 구분되는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화석의 존재가 지하의 석탄과 결부됨이 증명되면서 러허 지역에 대한 열망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경쟁 속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화석 연료의 매장지를 향한 것이 되었다. 이 숨 가쁜 시대를 묘사하는 로가스키의 서술에서 주목할 것은 이곳의 지질학을 연구하는 서구와 중국의 학자들이 지녔던 복잡한 세계인식의 층위이다. 예를 들어 미국인 고생물학자 아마데우스 그레이보(Amadeus Grabau)는 러허에서 출토된 화석을 통해 지질학과 지구의 역사 자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보편 지식에 대한

열망을 드러낼 수 있었고, 관련된 지식들에 대한 권위를 화석들에 대한 명명을 통해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연료 매장지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엄연히 열강의 실질적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제자인 1세대 중국 지질학자들은 새로운 국민국가의 자강과 발전을 열망하여 연구에 임했으며, 그 연구의 범주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보편” 지식은 제국의 위계가 층층이 쌓여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던 것이다.

제국의 이해와 야욕은 전시에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제6장에서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만주의 과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던 전염병 연구를 탐구한다. 그리고 이로써 성스러운 용의 땅이 어떻게 “전염병의 땅”이 되었는지를 추적한다. 여기서 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로가스키는 당시 진행되었던 전염병 연구들이 그 목적을 막론하고 인간의 신체를 균이 서식하고 퍼질 수 있는 장소로 간주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삼성 방역사무총처(東三省防疫事務總處, NMPPS)로 대표되는 중국 근대 의학의 발전이 부검이나 사후 병리학 연구와 같은 인간 신체 공간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만주국(滿洲國)의 731부대가 생체 실험을 통해 전염병의 전파 경로와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한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물론 저자는 이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치료를 위한 행위와 생물 병기를 만들기 위한 생체 실험이 결코 동일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후자가 용인할 수 없는 잔혹 행위임은 당연한 전제로 제시하면서 저자는 20세기에 들어 의학 분야에서 인간의 신체를 공간으로 전환시킨 것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살피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한 진료소가 곧 현장이자 실험실이 되었고, 사망한 이들은 19세기의 식물 “분석”과 마찬가지로 해부되었다. 인간 또한 데이터가 됨으로써 자연을 이해하는 지식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은 끊임없이 유사한 관점을 재생산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제7장의 “과학적 구원(scientific redemption)”을 통해 드러난다. 한국전쟁 시기 사회주의 중국의 과학자들은 미국이 생물 병기를 사용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이 내재화해온 자연 지식을 활용하였다. “보편 지식”이 점차 진정한 의미의 보편 지식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전염병의 땅” 만주가 그를 제어하고 극복한 “자신감의 땅”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저자의 표현대로 과학적 구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 환경에 대한 지식을 점차 더 적극적으로, 심지어는 인간 신체까지도 분자화하며 창출하고 더 나아가 이를 치료제나 무기로서 활용해 자연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만주라는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을 급격하게 바꾸어왔다. 이러한 물리적 노력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은 제8장의 썌장(三江) 평야일 것이다. 헤이룽장성 동북쪽 끝에 위치한 썌장 평야는 본래 세 줄기의 강 사이에 놓인 담수 습지대였다. 그러나 중국인을 위한 식량을 생산할 농경지가 필요해짐에 따라 북방의 황무지를 양식 창고로 전환하려는 대규모 개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습지가 인간의 노동을 통해 농경지가 되었던 일련의 과정은 인간과 자연의 공동 생산의 결과이자 인간과 기계의 꿈이 실현된 것이었다. 저자는 이를 인간 간의 서열과 구조를 전복해 위치를 새로이 하는 “번신(翻身)”의 서사와 땅을 새로이 개간함으로써 위치를 새로이 하는 “번토(翻土)” 서사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311). 물론 이것이 20세기 중반에 갑작스럽게 발생했던 것은 아니다. 로가스키가 지적한 대로 만주 지역에서의 농기계 활용을 통한 생산력 증대 도모는 청대 이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청 관료와 미국의 자본가, 중국의 개혁가, 소련의 고문, 그리고 일본의 계획가들까지 20세기 내내 품어왔던 “기계화된 근대성(mechanized modernity)”에 대한 열망은 결국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 실현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당시의 서사를 정책 입안자나 관료들의 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개간을 위해 하방되었던 지식 청년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노동 기억이 곧 썌장이 평야가 되었던 과정이기 때문이다.

로가스키는 이처럼 제1장에서부터 제8장까지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구체적인 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해 더 큰 맥락 속에 배치한다. 그 맥락이자 중심은 바로 책의 제목대로 만주라는 장소를 “알아가는” 데 있다.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 제국에서 국민국가까지 긴 시간의 흐름을 일관되게 끌고 나가는 것은 바로 이 장소의 유동성을 따라가는 저자의 시선이다. 행위자도, 구체적인 장소도 다르지만 모두 만주에 대한 지식의 창출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개별 존재들을 견주어 볼 수 있다. 용맥이 흐르는 성스러운 땅이 풍부한 화석 연료의 매장지가 되고, 다시 전염병의 땅이 되며, 그것을 극복하고 곡창 지대로 이행하기까지, 만주의 자연과 인간은 끊임없이 연관성을 맺어왔다. 저자가 언급했듯 그 연관성이 늘 만주 주민들에게 반가운 것은 아니었다. 만주의 벼

록, 설치류, 그리고 인간이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됨에 따라 전염병이 창궐했던 것은 그러한 연관성의 두려운 측면을 부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 또한 아니다. 아무르강 유역에 거주했던 현지인이 식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몸을 치유하고 돌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연관성이 지녔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이렇듯 로가스키는 자연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여러 장면을 만주라는 공간을 무대로 해 연결지음으로써 그에 대해 재단하지 않고 응시할 뿐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지식을 창출하는 데 있어 시각적 요소가 중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16). 변화의 순간과 그 궤적을 포착함으로써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저자의 “응시” 또한 만주라는 공간에서 인간 그리고 비인간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궤적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효과적인 매개가 된다. 이 책을 통해 복합적인 상이 이루는 각각의 서사들을 응시함으로써 다양한 모습을 “알아가는” 여정에 함께한다면 단순한 공간적 배경이 아닌 생동하는 역사적 구성 요소로서 만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